

훈민정음

이현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잘 알려져 있다시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책자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이요, 다른 하나는 문자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이다. 이곳에서는 이 두 가지 훈민정음에 대하여 다 언급하기로 하되, 훈민정음에 대한 정보의 가장 큰 원천은 무엇보다도 책자 〈훈민정음〉 속에 들어 있으므로 〈훈민정음〉의 체재를 살펴가면서 언급해 나가기로 한다.

〈훈민정음〉은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에 간행되어 나왔다. 〈세종실록〉 권 113의 28년 9월조 끝에서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룩되었다(是月訓民正音成).”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 끝부분에 정

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이라 기록되어 있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훈민정음>은 우리 나라에서 그 이전에 간행되어 나온 책자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체로 오늘날의 마침표 내지 온점(.)에 해당하는 구점(句點; 右圈點)과, 쉼표 내지 반점(,)에 해당하는 두점(讀點; 中圈點) 및 파음자(破音字)의 성조를 표시하는 권성(圈聲)이 사용되어 있는 것이다. 구두점과 권성이 다 사용된 <성리대전(性理大全)>(1415년)의 체재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에도 그것들이 다 사용되었다. <성리대전>은 세종 원년(1419년)에 명나라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가 우리 나라의 사신을 통해 보내 준 책자들이다. 세종은 이 <성리대전>을 기반으로 하여 새 문자를 창제하고 예·악(禮樂)을 정비하는 등 문화 정책을 펼쳐 나갔을 뿐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책자의 체제도 그 문헌을 본떠 만들었다. 그만큼 세종이 <성리대전>을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훈민정음> 외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1447년)도 구두점과 권성을 다 사용한 문헌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간행되어 나온 어떤 문헌에 구두점과 권성을 다 사용한 일은 세종 당대의 문헌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훈민정음>은 33장(張)짜리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나왔다. 그런데 이 목판본의 밑바탕이 되는 원고[板下]의 글씨를 쓴 사람[板書者]이 세종의 셋째아들이었던, 당대의 명필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이기 때문에, 이 책자는 서예학의 측면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2

〈훈민정음〉은 크게 보면 ‘예의(例義)’와 ‘해례(解例)’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는 세종이 만들었고, 해례는 정인지를 비롯한 8명의 신하들(정인지·최항·박팽년·신숙주·성삼문·강희안·이개·이선로)이 만들었다. 〈세종실록〉 권 113의 28년 9월조에는 이미 앞의 제1장에서 인용한 문장에 뒤이어 ‘御製曰’이라 하고 나서 예의 부분(세종의 서문과, 훈민정음의 음가 및 운용법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어, 세종이 그것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글자 크기를 달리 하여, 임금이 작성한 부분은 큰 글자로, 신하들이 작성한 부분은 작은 글자로 새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의가 14행에 매행(每行) 11자로 되고, 해례가 16행에 매행 13자로 되었다(정인지의 서문은 한 글자를 낮추어 적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의와 해례에 면수[張次]가 각각 따로 매겨져 있으며 판심제(版心題)가 ‘正音’과 ‘正音解例’로 달리 달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33장(張) 가운데 예의가 4장, 해례가 29장으로 되어 있는바, 예의가 4까지, 해례가 1부터 29까지 장차를 따로 매기고 판심의 제목을 달리 새겨 놓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의가 4a면에서 끝나고 나서 4b면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이유와, 해례가 시작할 때 1a면 맨 앞에 ‘訓民正音解例’라는 내제명(內題名)을 다시 갖추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체제상 예의와 해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체제는, 달리 말하자면 본문과 해설을 짝지워 놓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성리대전〉이 북송 및 남송 시절에 이룩된 성리학의

업적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본문으로 하고 그 각각에 대한 주석을 명나라 영락제 당대의 학자들이 붙인 체재로 되어 있듯이, <훈민정음>도 세종이 쓴 예의를 큰 글씨의 본문으로 하고 신하들이 쓴 해례를 작은 글씨로 하여 그에 대한 해설로 짝지워 놓은 체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문과 해설의 체재는 <용비어천가>나 <월인석보>, 그리고 많은 불경언해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본문과 해설 부분이 서로 독립된 체재로 되어 있다는 점이 앞의 문헌들과는 또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훈민정음>의 체재를, 더 세분하여 예의·해례·정인지서(鄭麟趾序)의 셋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즉 해례에서 정인지의 서문을 분리해 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3분 체재로 파악한 큰 이유는 <세종실록>에서 예의를 싣고 난 뒤에 이어서 '禮曹判書鄭麟趾序曰'이라 하고 나서 정인지의 서문을 따로 싣고 있어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독립된 부분인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책자의 체재상으로 볼 때나 내용상으로 볼 때, 정인지의 서문은 해례에 대한 서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 정인지의 서문은 해례의 용자례(用字例)에 뒤이어 한 행의 비움도 없이 계속될 뿐 아니라, 장차가 연속해서 매겨져 있고 판심제가 동일하게 '正音解例'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에 정인지의 서문을 실은 것은, 해례 전체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실을 수 없어 부득이 해례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서문만을 실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훈민정음>의 체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1) 예의

해례

세종 서문 - 음가·운용법

5해와 1해 - 정인지 서문

이 가운데 예의 부분만이 15세기에 우리말로 번역[諺解]되어 나왔다. <월인석보(月印釋譜)> 권 1·2의 맨 앞머리에 실려 있는 ‘世宗御製訓民正音’이 그것이다. 이것은 (1)의 예의에 중국음[漢音]의 치두음과 정치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언해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훈민정음> 예의본이니, 국역본이니, 언해본이니 하고 불러 왔다. 아마도 이 언해본은 <석보상절(釋譜詳節)> 권 1이 발견되어 나오면 그 맨 앞머리에도 실려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석보상절>에 이미 치두음과 정치음 표기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전체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은 해례까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이니, 원본(原本)이니 하고 부르기도 하고, 언해본이라는 명칭에 대비하여 한문본이라고 불러 오기도 한 것이다. 이 해례본은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굴되어 나온 책자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 당시 첫 두 장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는데 그 후 기워 넣는 과정에서 상당한 실수가 저질러졌다. 세종 서문의 마지막 글자 ‘耳’가 ‘矣’로 잘못 씌어지고, 구두점과 권성이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많다.

3

‘예의(例義)’라는 말은 정인지의 서문에 나온다. “계해년(세종 25년, 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히 예와 뜻[例義]을

들어 보이시고서 이름하시기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하는 데에 들어 있다. 이 한문의 인용문에서 구점은 ‘.’로, 두점은 ‘;’로 바꾸어 제시하였고(이 표기 방법은 뒤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癸亥冬. 我’ 뒤를 다 비우고 ‘殿下’를 다음 행에서 시작하는 존대절차(擡頭法 내지 空格의 방식)가 원문에 사용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무시하고 제시하였다. 예의는 세종의 서문과, 훈민정음의 음가 및 운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의 서문에서는 새 문자를 만든 목적과 취지를 밝혔다. 이 서문은 54자로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글자수가 조절되었다고 파악되기도 한다.

그 뒤를 이어, 초성자와 중성자의 음가를 밝혔다. 초성자는 아(牙)·설(舌)·순(脣)·치(齒)·후(喉) 음의 순서로, 그 각각은 원칙적으로 전청(全淸)·차청(次淸)·불청불탁(不淸不濁) 자의 순서로 17자를 배열하되, 병서(竝書)를 할 수 있는 글자 뒤에 전탁자 6자(ㄱ ㅋ ㆁ ㆁ ㅅ ㅆ)의 내용을 추가하여 배열해 놓았다. 대표적으로 아음의 것만을 들자면,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 竝書. 如虵字初發聲 /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 ㅇ. 牙音. 如業字初發聲’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서 /는 행 바꿈을 표시한다. 그리고 ‘竝書’는 ‘牙音’과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중성자는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의 11자에 대한 음가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본 세 글자에 대한 것만 들자면, ‘·. 如吞字中聲 / ㅡ. 如卽字中聲 / ㅣ. 如侵字中聲’ 식으로 되어 있다.

새 문자가 만들어져 처음으로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자를 통하여 그 음가를 제시하였다. 초성자는 ‘ㄱ(君), ㅌ(虵), ㅋ(快), ㅇ(業), ㄷ(斗), ㅌ(覃), ㅍ(吞), ㄴ(那), ㅈ(警), ㅊ(步), ㅍ(漂), ㅊ(彌), ㅈ(卽), ㅊ(慈), ㅈ

(侵), ㄸ(戍), ㄸ(邪), ㅍ(挹), ㅎ(虛), ㅎ(洪), ㅇ(欲), ㄹ(閏), ㄹ(穰)’으로 제시하였고, 중성자는 ‘ㅇ(吞), 一(卽), 丨(侵), ㄱ(洪), ㅏ(覃), ㅑ(君), ㅓ(業), ㅕ(欲), ㅗ(穰), ㅛ(戍), ㅜ(驚)’로 제시하였는데, 초성자와 중성자의 음가를 제시하는 데에 같은 한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교묘하게 배려하였으나 잘 쓰이지 않는 글자들도 많이 사용되었음이 흥미롭다. 이 글자들은 해례에서도 계속 동원되면서 설명을 보충하는 예로서 사용된다. 적어도 종성자로 사용될 수 있는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 가운데, 우리 고유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ㅅ, ㄹ’ 종성을 제외한 글자들이 종성에 사용될 수 있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ㄱ(卽), ㅇ(洪), ㄷ(驚), ㄴ(君), ㅂ(業), ㅁ(覃)’이 그것들인데 이 6자는 초성·중성의 음가 설명과 종성의 설명에 다 동원되는 셈이다.

이 뒤를 이어 ‘終聲復用初聲’ 규정이 나온다. 이를 두고서 종성의 표기에 대한 규정인 것으로 이해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앞의 초성·중성의 음가에 대한 규정에 뒤이어 종성에 대한 음가를 제시해야 하나 따로 종성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가져다 사용함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 뒤 부분에는 새 문자의 운용법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더 제시되어 있다.

- (2) ㅇ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 初聲合用則並書, 終聲同. ㄱ一ㄴㅏㅑㅛ, 附書初聲之下. 丨ㅏㅑㅗㅛ, 附書於右.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구두점의 사용으로 볼 때 (2) 부분은 7개의 완결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전체가 끝날 때는 구점을 찍지 않기 때문에, '促急' 뒤에는 구점이 찍혀 있지 않다. (2)는 연서 규정(한 문장), 병서 규정(한 문장), 부서 규정(두 문장), 성음 규정(한 문장), 가점 규정(두 문장)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의본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면, 두 책자에 담겨 있는 내용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운용법에 대한 인식이 두 책자에 관련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 (3) ○를 連書唇音之下하면 則爲唇輕音하니라 / 初聲을 合用嘉디면 則竝書하고 終聲도 同하니라 / ·-ㅓㅓㅓㅓㅓㅓㅓ 附書初聲之下하고 / ㅣㅓㅓㅓㅓㅓㅓㅓ 附書於右하리라 / 凡字ㅣ必合而成音하니 / 左加一點하면 則去聲이오 / 二則上聲이오 / 無則平聲이오 / 入聲은 加點이 同而促急하니라

편의상 (3)에서는 그 언해문과 협주·한자음·성조표시를 제시하지 않았고, /를 사용하여 예의본에서 행해진 의미단락 구분을 표시하였다. (2)와 (3)을 면밀히 대조해 보면, 단순히 문장을 종결시켜 표현하느냐, 연결시켜 표현하느냐 하는 차이로만 보아 넘기기 어려운 곳이 없지 않다. 특히 '凡字必合而成音'이라는 성음 규정이 뒤의 가점 규정과 맺는 관계가 (2)와 (3)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성음 규정이 (2)에서는 독립적인 구절로 이해되어 가점 규정은 별개의 내용인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3)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점하여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행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해례본 자체도 예의와 해례에서 이 규정들을 약간씩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례본에서는 연서가 제자해에서, 중성의 병서가 중성해에서, 가점 방법(성조 표시)이 종성해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나, 이들 전체는 합자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즉 해례에서는 이들 규정들이 합자법의 일환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의에서는 ‘凡字必合而成音’하는 성음 규정만이 합자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병서 규정과 관련하여, 예의에서는 초성과 종성의 병서만 언급되나 해례에서는 중성의 병서가 추가되어 언급된다는 점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도 예의와 해례의 작성자가 달랐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해례는 제자해(制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의 5해(解)와 용자례(用字例)의 1례(例) 및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해(解)’는 문자 그대로 “(어떤 원리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의 의미를 가지고, ‘예(例)’는 “보기”의 의미를 가진다. 글자를 만든 원리에 대한 해설(제자해) → 초성에 대한 해설(초성해) → 중성에 대한 해설(중성해) → 종성에 대한 해설(종성해) → 초성·중성·종성의 세 글자를 합쳐 쓰는 방법에 대한 해설(합자해)의 순서로 5해를 구성하고서, 마지막으로 합자법에 의해 올바르게 구성된 단어에 대한 실례를 용자례에서 들어 보인 것이다. 자못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해

가 끝난 뒤에는 ‘訣曰’ (“비결에 이르기를”)이라 하고서 운문(韻文)으로 그 해의 내용을 압축해 놓았다. 이 결(訣)만 암송하면 각 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제 이들 각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피기로 한다.

제자해에는 대단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새 문자를 만든 대원리를 설명하였다. 성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이치를 다하였다(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고 하였다. 또한 정음 28자는 상형을 하여 만들었다고 천명하였다.

② 초성은 17자이다. ㄱ(아음), ㄴ(설음), ㄹ(순음), ㅅ(치음), ㅇ(후음)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의 글자들은 소리의 세기[厲]에 따라 획을 가하여[加畫] 만들었으나, ㄷ와 ㅌ는 각각 혀와 이의 꼴을 본떴으며 몸이 달라 가획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초성 17자가 오행(五行), 사시(四時), 오음(五音), 사방(四方)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였다. 성음의 청탁으로써 초성자를 구분하였다. 전청(ㄱ ㄷ ㅌ ㅅ ㅈ), 차청(ㅋ ㅌ ㅍ ㅊ ㅎ), 전탁(ㄴ ㄷ ㅌ ㅅ ㅈ), 불청불탁(ㅇ ㄹ ㄹ ㅅ ㅈ)의 23자가 그것이다. ㄴ, ㄹ, ㅇ 외에 ㅅ과 ㅇ가 제자(制字)의 시초[始]가 되는 근거를 들었으며, 전탁자 만드는 방법과 순경음자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③ 중성은 11자이다. ㅡ 丨의 세 기본자가 천·지·인을 상형하여 만들어졌음을 말하였다. 초출자(初出字) ㄱ ㅌ ㅍ ㅊ와 재출자(再出字) ㅋ ㅊ ㅍ ㅊ의 음감이 어떠하며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음양·오행 및 생위(生位)와 성수(成數)의 관점에서 중성자를 설명하였다.

④ 초성과 중성을 대비하였다. 중성은 하늘의 용[天之用]이며 초성은 땅의 공[地之功]으로서 중성이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뒤에서 화답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⑤ 초성·중성·종성이 합성한 글자에서의 상호간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초성은 하늘의 일[天之事]이고, 중성은 땅의 일[地之事]인데 중성은 사람의 일[人之事]로서 그 둘을 잇고 접한다고 파악하였다. 자운(字韻)의 요체는 중성에 있어 초성, 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고도 하였다.

⑥ 종성으로 초성을 다시 쓰는 것[終聲之復用初聲]을 순환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초성해에서는 정음의 초성이 운서(韻書)의 자모(字母)와 같다고 규정하였다. 아음(牙音) ‘君’자의 초성은 ‘ㄱ’인데, ‘ㄱ’가 ‘군’과 더불어 ‘군’이 된다는 식으로 아음 ‘ㄱ ㅋ ㆁ ㅇ’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 예시의 과정에서 ‘快’의 음을 ‘쾌’로, ‘𪛗’의 음을 ‘꾸’로 표시하여 <동국정운>식의 ‘·랭’, ‘·캥’, ‘·꿍’ 표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해례에서는 우리 고유어를 예로 들 때에는 ‘·옷(衣)’, ‘·실(絲)’처럼 성조 표시를 하였으나, 한자음의 경우에는 일체 성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즉, ‘즉(卽)’, ‘업(業)’, ‘별(鶯)’ 등의 한자음의 경우, 이들이 <동국정운>에서는 다 거성적인 입성인 것으로 처리되지만(·즉, ·업, ·별), 해례에서는 전혀 성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이 초성해에 나오는 ‘快’의 한자음이 ‘·쾌’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 것은 영인 과정상 묻은 티끌을 성조 표시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례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예들이지만, ‘業’과 ‘卽’ 등의 성조가 해례에서 평성적인 입성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동국정운〉에 가서 거성적인 입성으로 달리 처리되었다고 언급해 온 점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성해에서는 중성이란 자운(字韻)의 가운데에 있어서 초성·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두 글자 중성을 합용하는 방법을 모음조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과 거 꺾 꺾), 한 글자 중성에 ‘ㅣ’가 합한 글자 10개(ㄴ ㅣ ㄴ ㅣ ㄹ ㅣ ㄹ ㅣ ㅁ ㅣ ㅁ ㅣ ㅂ ㅣ ㅂ ㅣ ㅅ ㅣ ㅅ ㅣ)와 두 글자 중성에 ‘ㅣ’가 합한 글자 4개(과 꺾 꺾 꺾)를 제시하면서, ‘ㅣ’가 모든 중성 글자에 다 어울릴 수 있는 이유를 혀가 펴지고 소리가 알아서 입을 열기 편하기 때문이라는 조음적인 측면에서 찾은 외에, ‘ㅣ’의 상형 대상인 사람[人]이 만물을 옆에 능히 참관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고 형이상학적으로 부연하였다.

종성해에서는 종성이란 초성과 중성을 이어서 자운(字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① 평성·상성·거성·입성 등 성조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글자가 다 종성에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리가 센[厲] 전청·차청·전탁의 글자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입성이 되고, 소리가 세지 않은[不厲] 불청불탁의 글자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평성이나 상성, 또는 거성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ㅇ ㄴ ㄹ ㅁ ㄹ ㅂ ㅅ’의 6자가 종성에 쓰이면 평성·상성·거성이 되고, 그 외의 글자가 종성에 쓰이면 입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초성 글자가 다 종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ㄱㅇ ㄷㅇ ㅂㅇ ㅅㅇ ㅈㅇ ㅊㅇ ㅋㅇ’의 8자만으로 가히 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빛꽃(梨花)’과 ‘엿의갓(狐皮)’의 종성들은 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단지 ‘ㅅ’자로만 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후대에 이른바 8종성법

이라고 알려지게 된 규정이다.

② ‘ㅇ’은 소리가 맑고 비었으니, 종성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중성으로 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훈민정음>에서는 이 규정이 ‘· 뒤(茅)’, ‘:되(山)’, ‘노로(獐)’와 같은 고유어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자음에도 적용되었다. 즉 <훈민정음>에서는 ‘쾌(快)’처럼 ‘ㅇ’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뒤의 <동국정운>에서 ‘· 켜’로 처리된 점과 차이난다. 이와 같이 한자음에도 ‘ㅇ’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일은 <월인천강지곡>과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훈민정음>에서는 ‘꾸(虬)’에서처럼 ‘ங’ 종성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오음(五音)의 완급(緩急)이 각각 저절로 상대가 된다 하고, 완과 급의 상대를 ㅇ-ㄱ(아음), ㄴ-ㄷ(설음), ㄹ-ㅂ(순음), ㅅ-ㅈ(치음), ㅇ-ㅎ(후음) 식으로 짝지워 놓았다.

④ 반설음 ‘ㄹ’ 종성은 우리말에나 사용되지 한자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입성의 ‘驚’자는 그 종성으로 마땅히 ‘ㄷ’을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점도 <동국정운>에서 ‘ㅇ’을 ㄹ에 보충함으로써 속음(현실음)으로 인해 올바른 음으로 돌아가게 된다(以影補來 因俗歸正)’는 식으로 처리한 것(즉, ‘ㄹ’ 종성의 사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합자해에서는 초성·중성·종성의 세 소리가 합쳐 글자를 이루는[成字] 방법을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① 초성·중성·종성을 쓰는 위치를 설명하였다.

② 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고 설명하였다. 초성·중성·종성이 다 병서될 수 있다. 초성 2자·3자 합용병서의 예[·ㅅㅅ(地), 짝(隻); ·뽕

(隙])와 초성 각자병서의 예[·혀(引), 괴·여(人愛我), 쏘·다(射之)], 중성 2자·3자 합용병서의 예[·과(琴柱); ·쾌(炬)], 중성 2자·3자 합용병서의 예[흙(土), ·낫(釣); 馱·때(西時)]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성 각자병서의 예들은 각각 '·혀(舌)', '괴·여(我愛人)', '소·다(覆物)'의 예들과 대비되어 있는데, 현대언어학에서 음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을 제시하는 방법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③ 한자와 우리말을 섞어 쓸 때 한자음에 따라 중성(예컨대, 'ㅣ')이나 중성(예컨대, 'ㅅ')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예: 孔子ㅣ 魯人 사름). 이미 국한문혼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우리말의 평성·상성·거성·입성 표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가함으로써 행해졌다. 평성의 무점(無點)도 점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자어의 입성은 거성적인 것밖에 없으나, 우리말의 입성은 평성적인 것, 상성적인 것, 거성적인 것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관찰하였다. 또한 각 성조의 성격을 사시(四時)와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⑤ 초성의 'ㅎ'는 'ㅇ'과 서로 비슷하니 우리말에서는 통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자음 초성에는 'ㅎ'와 'ㅇ'를 다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우리말 초성에는 'ㅇ'만 사용하였다.

⑥ 반설음 'ㄹ'에도 가벼운 음과 무거운 음의 두 종류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중앙어[國語]에서는 가벼운 소리와 무거운 소리를 구분하지 않으나, 그 둘이 다 소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순경음의 예에 따라 'ㅇ'를 'ㄹ' 아래에 이어 쓰면 반설경음(半舌輕音) 'ㄹ'이 되는데, 혀를 윗잇몸에 살짝 대는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⑦ ‘·’와 ‘-’가 ‘ㅣ’에서 일어나는 소리(즉, 이중모음 ‘ㅣ’와 ‘그’)는 중앙어 [國語]에는 쓰이지 않으나 아이들의 말이나 지방말에서 간혹 들을 수 있다는 관찰을 행하였다. 아마도 이 지방말은 제주도 방언이었을 것이다.

용자례에서는 해당 글자가 들어 있는 당대의 단어들을 예로 제시하였다. 초성(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ㅃ, ㅅ ㅆ ㅅ, ㅇ ㆁ, ㄹ, ㅈ)의 예로 34개(17×2개), 중성(· ㅡ ㅣ ㅏ ㅓ ㅗ ㅛ ㅜ ㅠ ㅝ ㅟ)의 예로 44개(11×4개), 종성(ㄱ ㆁ ㄷ ㅌ ㅂ ㅍ ㅁ ㅃ ㅅ ㅆ ㅈ)의 예로 16개(8×2개)의 단어, 도합 94개의 단어가 예로 제시되었다. 초성의 경우 후음에서 ‘ㅇ’의 예가 빠지고 대신 순음에 ‘ㅃ’의 예가 추가되었다. 또한 우리말 단어를 제시하면서 뜻을풀이한 한문 주석문의 체제를 본떠 ‘初聲 ㄱ, 如: 감爲柿, · ㆁ爲蘆’, ‘中聲 ·, 如: ㆁ爲頤, · ㅛ爲小豆, ㄷ리爲橋, · ㅆ래爲楸’, ‘終聲 ㄱ, 如: ㆁ爲楮, ㆁ爲瓠’ 식으로 행한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하면, “초성의 ㄱ는 ‘:감(柿)’, ‘· ㆁ(蘆)’의 예와 같다.”, “中聲의 ·는 ‘· ㆁ(頤)’, ‘· ㅛ(小豆)’, ‘ㄷ리(橋)’, ‘· ㅆ래(楸)’의 예와 같다.”, “終聲의 ㄱ는 ‘ㆁ(楮)’, ‘ㆁ(瓠)’의 예와 같다.”처럼 표현될 수 있다.

정인지의 서문은 해례에 대한 서문의 성격을 띤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언어관인 풍토설(風土說)에 입각하여 풍토에 따라 말과 소리가 다름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에서 한자를 빌려 썼으나 우리 문자가 아니므로 우리말에 맞지 않으며 신라 설총이 비로소 만들었다는 이두도 한자를 빌려 쓴 것이어서 한자 못지 않게 불편하여 훈민정음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훈민정음이 계해년(1443년) 겨울에 세종에 의해 창제되었음을 언급하고 그 성격을 설명하되, “꼴을 본뜨니 글자가 옛적의 전자와 비슷해지고, 소리를 따르니 음이 일곱 가락에 어울리게 되었다. 하늘·땅·사람이라는 삼

극의 뜻과 음·양이라는 이기의 묘함이 다 포괄되지 않음이 없다.(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고 하였다. 또한 28자가 아주 교묘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는 깨우칠 수 있다고 하였다. 훈민정음을 가지고서는, ① 한문을 풀이하여 뜻을 쉽게 알 수 있고, ② 송사(訟事)를 들어 그 사정을 알 수 있으며, ③ 자운(字韻)의 경우 청탁을 잘 구분할 수 있고, ④ 악가(樂歌)의 경우 율려를 극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등의 우수성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고 자랑하였다. 훈민정음 해례 편찬에 참여한 학자는 정인지 외 7명(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임을 밝히고, 해례 편찬의 목적이 훈민정음에 대해 해석을 자세히 가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게 함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5

이상과 같이 주마간산격으로 훈민정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훈민정음에 대하여는 문자전 책자전 간에 언급될 만한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바를 최대한 수렴하여 가급적 쉽게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골격을 소묘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 듯한 느낌이 든다. 책자〈훈민정음〉의 체재를 따라 가며 이모저모 언급하려고 하였지만, 매우 제한된 지면만이 허락되어 있어 해례에 대한 설명이 극히 소략하게 이루어져 아쉽다.

훈민정음에 대한 논의는 맨 먼저 책자〈훈민정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체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세종이 작성한 예의와 신하들이 작성한 해례 사이에 체제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임금 것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신하 것은 작게 하는 식으로 글자 크기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행수(行數)와 글자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뿐 아니라, 그 두 부분에 장차가 따로 매겨져 있으며 판심제가 달리 달려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의와 해례의 장차가 따로 매겨져 있으며 판심제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훈민정음>의 영인본들을 통해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두 영인본을 제외하고는 대개 판심 부분이 보이지 않게 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훈민정음>의 정본(定本)이 하루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해 마지 않는다.